



朴 昌 根  
(本会고문·環境教育会회장)

# 環境言論이 살아야 환경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요즘, 나라안이 전에 없이 시끌벅적하다.  
政街는 코 앞의 국회의원 선거로 어수선하고,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物價 잡기에 부산  
하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환경문제  
도 심상치 않다. 벌써 수십년 前부터 되풀이 해  
온 농약으로 키운 콩나물 범죄가 또 솟아나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영일만」 기름 오염  
사건도 아직 뚜렷한 해결을 못보고 있으며, 꼭  
밝아져야 할 서울의 공기도 답답할 뿐이다.  
말하자면, 나라의 정치, 경제는 물론 나라의  
기본인 陸海空 모두가 편안치 못하다는 이야기

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와중에 들려 오는 소식 하  
나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1년 전부터 목청  
을 돋구어 온 환경언론 하나가 최근 여러 복잡  
한 사정으로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언론에 노조가 결성  
되고 노조는 여러 이유를 들어 권익을 외치고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 “환경을 보호하자”는 외  
침보다 노조의 주장을 보호하라는 외침이 더  
커지고 급기야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로까지  
발전했었다고 한다.

웬일이냐?

좋은 뜻에는 좋은 일만 따르는 줄 알았었는데... 그래야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의 이서글픈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또한나의 公害가 아닐 수 없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조건 자기 희생에서 출발한다. 그래야만 하는 까닭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기 보다는 남을 위한 일이고 그것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먼 훗날의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명예도 동전 한 잎도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저한 자기 희생, 때에 따라서는 조금 멍청한 자기 도취의 바보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을 보호하면서 명예를 얻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명예란 답답한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에 지나지 않고, 그 돈이란 市中의 돈 놓고 돈 먹기 式의 致富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정말, 명예를 위해서라면 세상이 공인하는 명예사업을 하는 것이 확실하고,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아직도 늦지 않은 땅을 사거나 정보를 빨리 얻어 증권을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데는 우선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최근의 한 환경언론 사태는 누구

의 잘 잘못을 따지기 앞서 環境史의 비극이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생각해 보건데 그 언론을 시작한 社主는 대단히 답답한 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돈이 되지 않는 언론, 그것도 환경보호라는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 式의 구름 잡는 일에 나설리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그 언론의 社主는 오래 전부터 월간 「전기전자계」라는 잡지를 발행해 왔다. 그 년륜과 그 시장의 특성으로 잡지는 팔리고 그래서 자신감이랄까? 그런 사명감으로 환경오염의 위해성을 안타까워해 답답하게도 환경언론을 창간한 것이다.

물론, 그때부터 그 환경언론은 赤字의 늪으로서 서서히 빠지고, 조금되는 前記의 잡지로 늪에 빠지는 환경언론의 赤字폭을 끌어 당기느라 무진애를 썼지만... 창간 1년의 결과는 엄청난 빚더미였을 것이다.

그래서, 언론사내의 살림도 퍼지지 않았을 테고... 그러니 식구들 대접도 충분하지 않았을 테니, 불만이 원성이 되고 원성이 끝내는 폭발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 以外에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 모두는 환경언론의 길이 결코 순탄치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라고 본다.

여기에서 필자는 노조를 두둔하거나 나무랄, 또 社主를 두둔하거나 나무랄 생각은 추호도 없

다. 오직 다른 곳과 달리 환경보호라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일을 <하자고> <하겠다>고 나선 社主와 노조가 웬일로 市中の 일반 社主와 노조같이 극한 對立으로까지 치닫고, 급기야는 치졸한 문제로까지 飛火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환경언론을 단순하게 일반 직장으로 생각한 노조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그런 노조에 대하여 정말 우정과 사랑으로 이해시키지 못한 社主에게도 책임이 있다.

왜? 노조는 극에 치닫기 전에 환경언론이라는 답답한 일을 하는 社主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말하자면, 서로 상대방 측을 자신의 일로 조금씩만 이해했다더라면, 그리고 조금씩만 양보했다더라면, 이런 가슴 아픈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답답하다.

좋은 일을 하면서 얼굴을 붉힐수는 없다. 더구나 먼 훗날의 희생적인 일을 하면서 지금 다룰수는 없다.

서로 양보하는 희생적인 환경보호 정신으로 和습이 이루어져야 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그 환경언론의 제작에 심각한 고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여느 언론과는 달리, 그 외침이 중요한 환경언론의 외침을 뒤로 하고 내 주장만 관철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환경보호도 계속 소리 높여 외치면서 내 주장도 펴야 한다.

돈이 없어 외침을 찍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떤 경우에서도 환경언론의 외침은 찍혀 나와야 한다.

다행히 이웃의 또하나의 환경언론이 그 고통받고 있는 환경언론을 위해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고맙고 흐뭇한 이야기다. 비록 경쟁사이기는 하지만 환경보호라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길을 가는 입장에서 상대를 돕는다는 것은 환경보호의 정신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의 정신에서도 귀감이 될 일이다.

다행히, 그 시끄러웠던 문제가 바로 수습되었다고 한다. 차제에, 이 나라의 환경언론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쳤으면 한다. 모든 환경언론의 社主와 記者가 하나가 되어 한달에 한번씩 야유회를 가든지 아니면 친목계를 묶어서던지 서로 자주 만나 이야기해야 환경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야 이 나라의 환경이 더 강하게, 더 빨리 보호될 수 있다.

요즘, 총선으로, 물가로, 또 바다 기름으로, 농약 콩나물로, 그리고 시원하게 확 맑아지지 않는 서울의 대기로, 우리네 주위가 시끌벅적한데……

우리들 환경을 보호하는 희생자들 끼리, 아니 天下의 바보들끼리, 약삭빠르고 똑똑한 사람들 같이 시끄러울수는 없지 않는가?

(88. 3. 14)